

# 제3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 일본 아스펜 심포지엄

10/ 17 (수)

2012 The 3<sup>rd</sup>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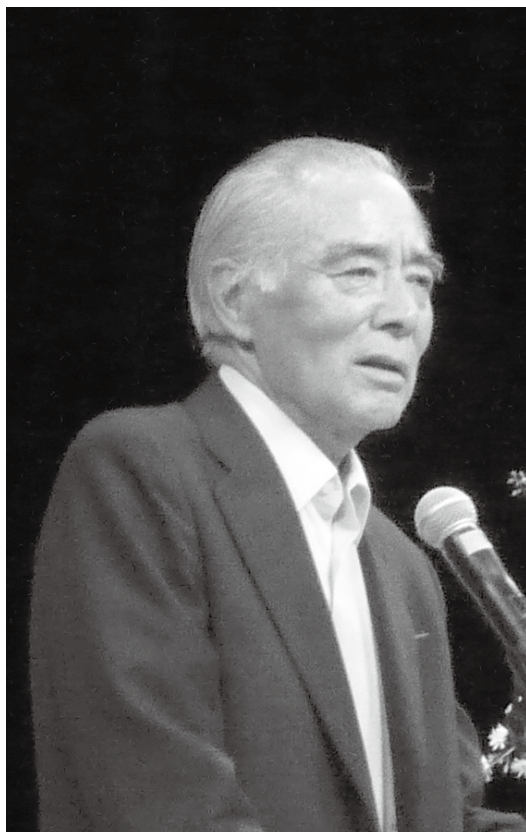
## 제3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 일본 아스펜 심포지엄

### ‘향후 인재 육성 ~ 높아지는 동아시아의 존재감’



### 기조 강연

#### 테마 ‘글로벌 인재와 아스펜 연구소’



#### 고바야시 요타로

일반사단법인 일본 아스펜 연구소 이사장/후지제록스 전 회장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리더십의 요건을 6개 이끌어냈다. 첫째 사명감, 둘째 확고한 각오, 셋째 지적 능력, 넷째 체력, 다섯째 표현력, 여섯째 겸허함이다. 월터 아이작슨 씨(미국 아스펜 연구소 이사장)도 리더십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겸허함이며, 겸허함이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마음을 낳고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1949년 미국 아스펜에서 열린 피테 탄생 200주년 축제 당시 시카고대학 총장 로버트 허칭스 씨가 근대 사회에서는 쇄말화(오타쿠화)와 전문화가 진행되어 다른 전문 영역과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 점을 지적했다. 고전(古典)의 재조명을 통해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대화를 거듭해 보다 넓은 소양과 교양을 갖춰 보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를 육성하자는 호소에 찬동한 미국의 비즈니스맨들이 만든 것이 아스펜 연구소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유식자 사이에서도 심각한 쇄말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대로는 틀림없이 쇠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일본의 새로운 모습을 세계에 제대로 어필하기 위해서도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리더는 존재감이 미약하고 리더십의 질도 저하하고 있다.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스펜이라고 본다. 일본 아스펜 연구소의 세미나는 다양한 업종의 관계자들이 모여 훌륭한 강사와 대화하며 공부할 수 있어 새로운 발견과 감동, 매력에 접할 수 있다.

마지막에는 경험이 위력을 발휘한다. 최근 일본의 젊은이들은 내향적이나 그들을 적극적으로 외부와 접하게 하고 외국의 좋은 인재를 일본에 도입하여 이문화와 교류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 패널리스트

**시라이 가쓰히코** 방송대학학원 이사장, 와세다대학 학사고문(전 와세다대학 총장)

인재육성의 근본은 인간의 힘 ‘인간력’으로, 아시아 각국의 학생들이 교류하면서 교육을 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권 또는 글로벌한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

글로벌 리더는 물론 지역을 창조하는 인재도 지금은 충분치 않다. 리더가 중심이 되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고등교육 및 대학의 사명이다.

고령화가 급피치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선은 청년들이 노동 인구로서 제 몫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능력을 지닌 인재가 필요하다. 소수 엘리트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층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창조해 나갈지가 문제이다.



## 패널리스트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글로벌화 시대를 사는 인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고용 시스템일 것이다.

OJT 중심의 교육 훈련으로 커리어를 쌓고 그것을 자기 현시하는 능력이 자라나지 않는 일본의 고용 제도로는 회사 내에서밖에 통용되지 않아 글로벌한 고용 시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 사회 전체, 특히 고용을 글로벌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대학과 사회의 접촉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대학의 존재 의의가 글로벌화하는 가운데에서 의문시되고 있다.



## 모더레이터

**시부야 하루요시** 사이타마대학 교육학부 교수

아스펜 메소드의 중심은 대화이다. 승부가 갈리는 토론, 진리나 최선의 결론을 이끄는 디스커션과는 달리, 대화는 서로의 인격성을 존중하고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 그 시간을 통해 자기와 대화하는 기회는 그 후의 행동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장 중요한 능력은 상상력과 연상력이다. 상상과 연상을 통해 자신의 세계가 점차 깊어진다. 또 자신이 놓인 위치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지견과 결론을 얻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 일본 아스펜 이그제큐티브 세미나

9/28(금)~10/3(수)



제3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맞춰 일반사단법인 일본아스펜연구소 주최 ‘일본 아스펜 이그제큐티브 세미나’가 나라현에서 개최되었습니다.